**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복음
강의 8B – 마태복음 18장: 왕국 공동체의 가치**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마태복음 수업 8b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의 네 번째 담화입니다. 처음 세 담화는 산상수훈, 10장의 선교 담화, 그리고 13장의 천국 비유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담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담화는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에게 말씀하며 그들의 기본적인 가치와 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관심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먼저, 이 네 번째 담화를 소개하고 핵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세 번의 담화처럼, 네 번째 담화도 18장 1절에 서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 얼마 전인 17장 말미에 성전세 징수 사건의 시기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담화는 다른 담화들과는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며, 마지막 담화는 24장과 25장에 나올 것입니다.

이 설교는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오셨다는 특징적인 진술로 끝맺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으실지 생각해 볼 때 불길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야기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18:1의 그 시점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신 일반적인 시간대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 다소 모호합니다. 17:23에 따르면 제자들은 이 소식에 슬퍼했지만, 그들의 슬픔은 슬프게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이고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추측으로 바뀌었습니다(18:1). 20절 20절과 28절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네 번째 담화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며, 18:21에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담화의 독특한 특징은 제자들의 질문에 말로 대답하기 전에 18:2에서 어린아이를 시각적 보조 자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론의 핵심 주제는 영적인 위대함이며, 영적인 위대함의 핵심적인 예는 장군이나 부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상하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설교자, 집사, 팝스타, 야구 선수가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담화는 구조적으로 그다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18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18 장 21절부터 35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각 부분을 비유로 마무리하는 18장 1절부터 14절과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접근법 중 후자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18장 2절부터 5절까지 "아이들"과 같은 핵심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담론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18장 6절, 18장 10절, 18장 14절에서는 "아이들"을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들로 묘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는지 주목해 보세요.

18:4절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본받아야 하며, 18:5절에 따르면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합니다. 18:6절과 18:10절에 따르면, 그들은 죄에 빠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며, 멸시받아서도 안 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위해 이러한 가족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마도 이 장에서 영적인 위대함을 표현하는 가장 눈에 띄는 모티프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녀이며,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형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동료 자녀입니다.

18장 8절과 9절의 언어는 절별 대구법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 표현 방식이 흥미롭고,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두세 단어의 반복과 하늘과 땅의 병치가 흥미롭습니다. 네 번째 담화는 영적인 위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겸손과 동료 제자들을 향한 환대의 의무를 가르치십니다(18장 3절에서 5절). 그런 다음 환대의 반대 개념인 모욕으로 넘어가, 예수님의 제자를 죄에 빠지게 하는 자는 누구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18장 6절에서 14절).

이어서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죄를 지은 형제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오래 참음과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며, 이는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무자비한 종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이 담화는 믿는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맥을 같이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겸손한 신분을 열렬히 지키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죄짓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18:7).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즉시 처리해야 하며, 징계 과정의 엄숙함은 18:15-20에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용서의 법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합니다(18:35). 이제 18:1-14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문제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적절한 실물 교훈을 즉흥적으로 선택하심으로써 자신이 최고의 교사임을 증명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이들이 순수하거나 주관적으로 겸손하다는 감상적인 생각 때문에 아이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적어도 어린 시절에 씨앗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비판하시는 특징들을 이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아이들은 순수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은유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은유를 선택하셨고, 마치 연출된 비유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를 지적하시며, 아이가 어른들의 손에 맡겨져 있고 사회적 지위가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른들, 특히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겸손은 아버지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점은 인적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력, 지위, 또는 신분을 포기하며, 5장 3절과 5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나가려는 욕망이 위대함을 성취하기 위한 온갖 죄악적인 전략으로 이어지는 현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완전히 포기하고 뒤집는 것에 불과합니다. 20장 26절과 27절, 그리고 23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겸손이 사람을 가장 큰 사람으로 만든다면, 교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겸손이나 진정한 위대함은 왕국의 제자들을 잘 대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5, 10:40과 비교하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을 학대하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7절. 어떤 희생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이나 발, 심지어 눈 하나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영적 희생조차도, 그 희생이 왕국으로 이어진다면 지나치지 않습니다.

18:8과 9. 13:44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벌의 양극성을 고려할 때, 제자들은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서로를 경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8:10. 서로를 경멸하는 대신, 길 잃은 양을 구해 주도록 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관심을 서로에게 가져야 합니다. 18:12-14.

안타깝게도 현대 문화는 여전히 아이들을 폄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예수 시대에도 분명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낙태라는 대학살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특히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아이를 매우 함부로 대하는 독신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받는 대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모가 겉보기에 평화롭고 뜻밖의 행운 속에서 살아가는 동화 속 가정들조차도, 안타깝게도 그 시절 아동 학대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문화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즉 아이들은 지위도 가치도 없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분께 빚진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린아이로 여기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제자들을 잘 대하는 것이 세상의 칭찬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어린아이들과 제자들에 대한 겸손과 관심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11:25, 12:18-21, 20:28, 21:5.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은 반문화적 행동으로, 성령께서 교만이라는 원죄 때문에 권력과 지위에 집착하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513-51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또한, 겸손과 동료 제자들에 대한 관심은 교회에서 징계가 필요할 때(18:15-20)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를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아직 배워야 할 교훈이 많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운명이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이며, 그들도 그분의 운명에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16장 21-28절에 따르면, 고난은 상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따라서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가?"라고 묻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과 그들의 운명, 곧 십자가의 길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치신 직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그토록 위대함에 몰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장 20-28절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앞서 겪으신 십자가의 경험이 자신들이 겪는 경험의 전형임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38, 11:29, 16:24, 20:28)

빌립보서 2-5장 이하, 골로새서 1장 24절, 히브리서 10장 32-38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 요한계시록 1장 9절 등 여러 구절을 비교해 보세요. "성경 구절이 너무 많네요."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8장 15-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짓는 신자를 바로잡는 세 단계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20절은 15-17절에 징계 절차를 제시하고, 18-20절에는 그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절차는 세 단계로 구성되며, 그 근거는 교회의 권위, 기도 응답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라는 세 가지 진리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잘못은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구절들에 제시된 절차는 필수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시며,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잘못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길 잃은 양을 구해 내는 본보기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 안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18:12, 15).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잠언 25장 9절과 10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15-17절에 언급된 이 과정에서 세 단계의 대립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최대한 조용히 공정한 처우를 보장합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교회 징계가 종종 가볍게 여겨지지만, 이는 불길한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측면입니다(잠언 6 장 10절). 형제의 제의를 차례로 거부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세 사람이 그 형제와 함께하고, 마지막으로 교회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징계에 관한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고린도전서 5장 1-6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린도후서 2장 5-11절, 13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14-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20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도서 2장 15절,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이서 10절, 요한삼서 10절, 유다서 20-23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에서 죄짓는 신자들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죄짓는 신자들을 다루는 문제를 계속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징계가 느슨할 때의 반대 위험은 징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징계나 교정에 대한 구절인 15-20절 바로 뒤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문맥적 완충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이 주석에서 말했듯이, 마태복음 18장 15-20절은 친절로 가득 찬 구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8장 5-6절에서 제자들을 겸손한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로, 18장 12-13절에서는 길 잃은 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용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15절에서는 죄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형제, 곧 동료 자녀로 묘사합니다.

징계 과정조차도 죄인에게 회개할 세 번의 기회를 주며, 징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치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목표는 화해하고 양 떼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징계 과정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방식대로 행할 때, 18절에 기록된 대로 매거나 푸는 어떤 결정이든 하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엄숙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중 두세 사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축복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20절에 따르면, 비록 두세 사람이 함께 모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죄짓는 신자를 진심으로 바로잡고자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겸손과 모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들, 특히 18절부터 20절까지의 엄숙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두세 명만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18장 19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방식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경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엄숙한 구절을 유머러스한 상투적인 표현으로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모이는 모든 합법적인 모임에, 그 모임의 규모와 관계없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엄숙한 구절을 문맥에서 벗어나 해석하는 것은, 그 구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교회의 대인 관계의 조화를 유지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장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죄짓는 신자를 용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비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1815년부터 20년까지 그러한 신자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 구절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예수님의 대답은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대답은 산문, 즉 단순한 명제적 화법이며, 두 번째 대답은 시, 더 구체적으로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이성적인 명제보다는 생생한 극적 묘사(23절부터 34절까지)를 통해, 그리고 35절에서 적용 또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두 대답, 즉 산문적 대답과 시적 대답 모두 두드러진 과장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8장 21절에서 그가 질문하는 방식대로, 누군가를 일곱 번이나 용서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분명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읽는 본문에 따라 77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번씩 일곱 번이라고 읽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용서는 지속적인 것이며, 우리는 형제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지에 대해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어떤 일도 그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몇 번이든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대답에 이어 예수님은 23절 이하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액수를 용서받았지만, 몇 년 동안 벌어야 갚을 수 있는 액수를 용서하지 않는 한 종과, 몇 달이면 갚을 수 있는 적은 액수를 용서하지 않는 한 종의 놀라운 대조가 담겨 있습니다.

용서받은 종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주인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이 익숙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첫 장면에서 주인은 겉보기에 회개하는 종에게 엄청난 빚을 갚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엄청난 빚을 막 용서받은 종은 나가서 자신에게 아주 사소한 빚을 진 동료 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세 번째 장면에서 두 종의 동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나서 겉보기에 회개하는 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의 행동이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을 때까지 고문을 당합니다. 그 형벌은 그가 벌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마태복음 6장의 요점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려 한다면(마태복음 6장 12절),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따르면, 이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동료 신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점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형제자매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그 자신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과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용서하지 않는 성격은 1826년 주인에게 한 그의 간청이 거짓이었고, 그의 용서가 거짓된 구실로 얻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누가복음 6장 36절,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 야고보서 2장 13절, 요한일서 4장 11절을 읽어 보십시오.

이 모든 구절들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특별한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무한한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제자가 자신에게 저지른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않은 것과 대조됩니다. 이 두 상황의 상충성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들은 동료 신자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신자 공동체 안에서 동료 인간에게 아무리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룩하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대한 악한 인간들의 극악무도한 반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비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를 받은 동료 형제에게 진정한 자비를 보이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 전체를 생각해 볼 때, 1815년부터 20년까지의 징계 과정과 이 장의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신자들을 대하는 데 대해 가르치는 매우 신중한 방식을 조화시키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 장은 용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즉 훈계가 필요하고 21절부터 35절까지, 즉 용서가 필요한 부분은 이 장의 핵심 주제, 즉 제자들이 아버지의 작은 자라는 사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형제자매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가족 안에서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가족의 제자들은 감히 죄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화가 하나님의 가족을 갈라놓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바로잡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 장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면, 길 잃은 양은 광야에 홀로 버려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길 잃은 양을 찾는 자들은 그 양의 허물을 용서함으로써 겸손하게 양 떼로 다시 맞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와 용서 사이에는 매우 미묘한 균형이 존재하며, 이 균형은 충실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징계와 교정 과정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교회에서 파문당하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 자초한 추방이며, 교회가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화해시키려는 교회의 모든 신실하고 겸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추방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 장이 이전과 이후의 맥락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요약과 전환점을 언급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의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선포하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으며, 제자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암울한 전망에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했습니다.

위대함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과 그에 따른 타인에 대한 평가절하가 있다면 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이 시점에서 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1624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서로를 맞이할 것입니다(18:5-10). 또한 잃어버린 양처럼 서로를 돌볼 것입니다(18:12-14).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겸손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나 단호하게 대할 것입니다(18:15-20).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필요한 만큼 회개할 것입니다(18:21-35). 우리가 겸손, 인내, 형제애라는 이러한 가치들을 지닌다면,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강화하고 예루살렘과 그 너머에서 앞으로 닥칠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련에 다가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전략적인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마땅히 기억 해야 할 본보기입니다 . 우리는 함께 강해져야 합니다. 외부에서 받는 것은 견디기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실제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왕국의 가치를 강조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18장, 특히 19장 14절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가치들을 본받으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세상적인 위대함이라는 관념과 계속해서 씨름할 것입니다.

20장 20절과 그 구절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 삶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닥쳐오는 박해와 고난에 대해 생각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의 동료 신자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